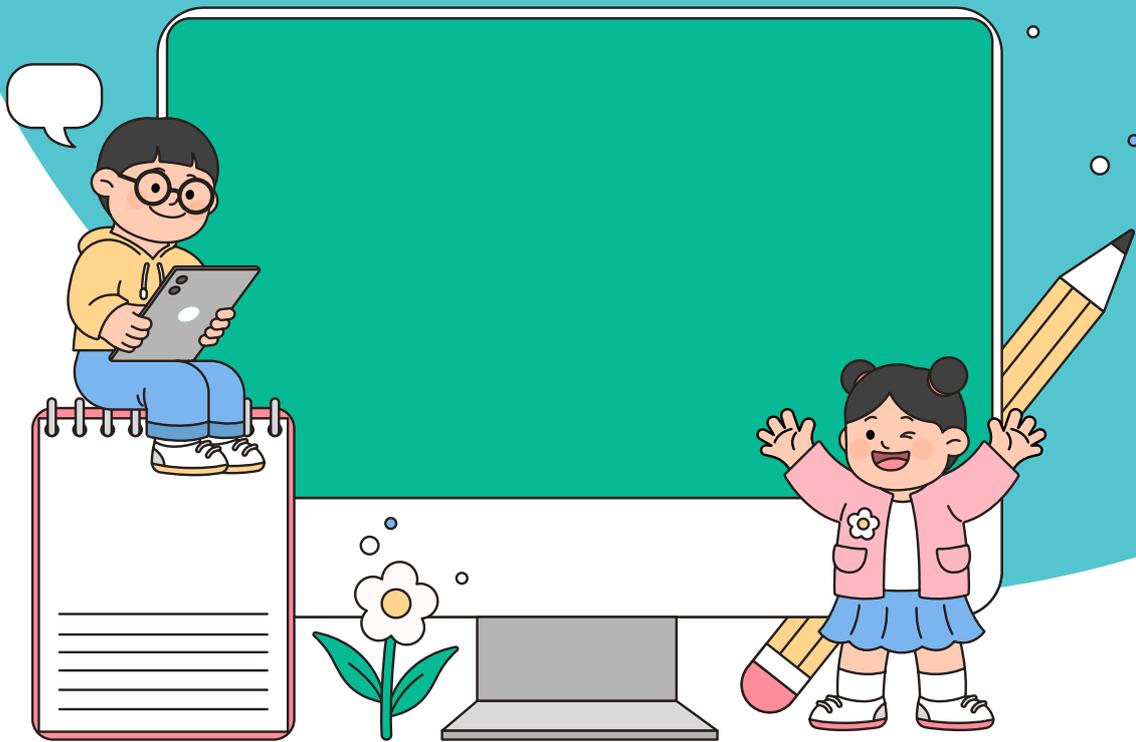


Readers are Leaders 

# 신문으로 배우는 디지털 시민교육

- 초등학생용 -



한국신문협회  
Korean Association of Newspapers

# CONTENTS

## 2025 '신문으로 배우는 디지털 시민교육' NIE 패스포트

일러두기	<u>03</u>
자기소개	<u>04</u>
한국신문협회 회원 신문사	<u>05</u>
활동 메모	<u>06</u>

---

<b>01.</b> 디지털 세상에서 나의 모습은?	<u>08</u>
<b>02.</b> 포노 사피엔스의 시대	<u>10</u>
<b>03.</b> 악성 댓글 공격을 막아라	<u>12</u>
<b>04.</b> 소중한 개인정보는 어떻게 지킬까요?	<u>14</u>
<b>05.</b> 디지털 공간이 무서워요	<u>16</u>
<b>06.</b> 혹시 나도 디지털 치매 환자?	<u>18</u>
<b>07.</b> '스몸비'와 '몰폰'이 습관이라면?	<u>20</u>
<b>08.</b> 진짜 같은 가짜 뉴스 구별하는 법	<u>22</u>
<b>09.</b> 나의 디지털 유산, 지울 수는 없나요?	<u>24</u>
<b>10.</b> 전 세계가 미성년자의 디지털 사용을 규제하는 이유	<u>26</u>
<b>11.</b> 보호받아야 할 저작권	<u>28</u>
<b>12.</b> 디지털 중독에서 탈출하라	<u>30</u>

---

VISA (확인서)	<u>33</u>
------------	-----------

---

## 일러두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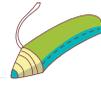
# '신문으로 배우는 디지털 시민교육' NIE 패스포트 사용법

- ✔ 2025 '신문으로 배우는 디지털 시민교육' NIE 패스포트는 어린이와 청소년 스스로 신문 읽기 활동을 통해 자존감을 높이고 소통능력을 자연스럽게 키울 수 있도록 마련된 워크북입니다. 이 패스포트는 주어진 물음에 따라 자신의 생각을 창의적으로 펼칠 수 있는 12개의 다양한 주제로 정리해 묶었습니다.
- ✔ 활동 주제는 자신의 관심이나 흥미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패스포트에 나온 주제를 차례로 수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10개 이상**을 권장합니다.
- ✔ 활동은 관심 있는 주제부터 하면 효과적입니다. **패스포트에 실린 순서와 상관없이 자유롭게 활동 주제**를 선택해서 활동해도 됩니다.
- ✔ 사용할 수 있는 신문은 **2018~2025년 발행된 신문**입니다.
- ✔ 보조자료로 어린이신문이나 인터넷 뉴스, 서적 등을 일부 활용할 수 있습니다.
- ✔ 주제 관련 활동을 할 때는 개별 또는 모둠 모두 가능하지만 개별 활동을 권합니다.
- ✔ 활동 내용을 정리할 때 **볼펜**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일 연필로 적을 경우라면 뚜렷이 드러나게 필기해야 합니다.
- ✔ 스크랩한 신문 자료가 클 경우, 자료를 접어 패스포트에 붙여도 됩니다.
- ✔ 활동 날짜, 참고한 신문과 인터넷 사이트 주소를 반드시 기록합니다.
- ✔ '나의 활동 메모'(6쪽)는 **활동한 날짜**를 씁니다.
- ✔ 과제를 모두 마치면 뒤쪽에 있는 '비자(visa)' 페이지에 선생님이나 부모님의 '확인'을 받습니다.



2025 '신문으로 배우는 디지털 시민교육' NIE 패스포트는 교과별 수행평가와 창의적 체험활동(자율·동아리·진로활동) 등에 활용이 가능합니다.

# 자기소개



자신의 사진을 직접 붙이거나  
직접 캐릭터로 그려 붙이기



이름



학교



학년/반



주소



연락처



발급일



활동기간



서명

# 한국신문협회 회원 신문사



<https://www.khan.co.kr>



<https://www.dnews.co.kr>



<https://www.munhwa.com>



<https://www.segye.com>



<https://www.ajunews.com>



<https://www.chosun.com>



<https://www.hankyung.com>



<http://www.kwnews.co.kr>



<http://www.hidomin.com>



<http://www.kyeongin.com>



<http://www.daejonilbo.com>



<https://www.iusm.co.kr>



<http://www.jjan.kr>



<http://www.joongboo.com>



<https://www.krnib.co.kr>



<https://www.donga.com>



<https://www.viva100.com>



<https://www.sportsseoul.com>



<https://www.yna.co.kr>



<https://www.joongang.co.kr>



<https://www.hankookilbo.com>



<http://www.kyeonggi.com>



<http://www.kbmaeil.com>



<http://www.kwangju.co.kr>



<https://news.imaeil.com>



<https://www.incheonilbo.com>



<http://www.jejunews.com>



<https://www.cctoday.co.kr>



<https://www.naeil.com/>



<https://www.mk.co.kr>



<https://www.sedaily.com>



<https://www.sportschosun.com>



<https://www.edaily.co.kr>



<https://www.koreatimes.co.kr>



<http://biz.heraldcorp.com>



<http://www.knnews.co.kr>



<http://www.kyongbuk.co.kr>



<http://www.kookje.co.kr>



<https://www.busan.com>



<http://www.jeollailbo.com>



<http://www.joongdo.co.kr>



<https://www.news1.kr>



<https://www.mt.co.kr>



<https://www.seoul.co.kr>



<https://www.asiae.co.kr>



<https://www.etnews.com>



<https://www.hani.co.kr>



<http://www.kado.net/>



<http://www.gnnews.co.kr>



<https://www.ksilbo.co.kr>



<http://www.idaegu.com>



<https://www.yeongnam.com>



<http://www.domin.co.kr>



<http://www.jbnews.com>

# 나의 활동 메모

## 참고

- ✓ 활동 순서는 패스포트에 실린 목차와 상관없이 자유롭게 선택해 활동할 수 있습니다.
- ✓ 활동주제 수는 **10개 이상**을 권장합니다.
- ✓ 아래표에서 '확인'은 주제 수행을 마쳤을 때 선생님이나 부모님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 ✓ 해당 사항이 없을 경우는 공란으로 비워둡니다.

순번	날 짜	활 동 주 제	
1			
2			
3			
4			
5			
6			
7			
8			
9			
10			
11			
12			



# 01. 디지털 세상에서 나의 모습은?



우리는 수시로 인터넷 검색 엔진과 디지털 콘텐츠 플랫폼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거나 정보를 얻고 있어요. 디지털 세상에서 나의 생활 모습이 어떠한지 알아보시다.

1. 아래 그림에서 내가 자주 사용하는 디지털 도구가 무엇인지 적어보고, '현실 속 나'와 '디지털 속 나'를 소개해 볼까요.



**활동 방법**

- 1) '현실에서 나'와 '디지털 속 나'에는 자신을 짧게 소개해 봅니다.
- 2) 괄호 안에는 자주 사용하는 디지털 도구(SNS, 포털 사이트 등)를 적습니다. 6개 모두 쓰지 않아도 됩니다.
- 3) '닉네임'은 자신의 별칭 또는 아이디(ID)를 적습니다.
- 4) '이용시간'은 자신이 하루 동안 디지털 도구를 이용하는 시간을 씁니다.



2. 앞의 1번을 바탕으로, 나는 디지털 세상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적어봅시다.

디지털 도구 질문	( )	( )	( )
이용 목적			
주로 이용하는 내용이나 활동			
이용해보니 좋은 점			
나의 만족도	★ ★ ★ ★ ★	★ ★ ★ ★ ★	★ ★ ★ ★ ★



활동방법

- 1) '디지털 도구'에는 내가 자주 사용하는 것을 2개 이상 적습니다.
- 2) '나의 만족도'를 스스로 평가해 별에 색칠합니다.



3. 디지털 세상에서 디지털 도구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습관을 정리해 보고, 앞으로 디지털 도구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나의 다짐을 적어봅시다.

질문	답변
올바른 디지털 도구 이용 습관	
앞으로 디지털 도구를 이용할 나의 다짐	

## 02. 포노 사피엔스의 시대



‘포노 사피엔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스마트폰은 우리 생활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게임을 즐기고, 영상을 보고, 지갑 없이 물건을 살 수도 있죠. 우리는 스마트폰 덕분에 더 빠르고 편리하게 세상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얻은 것이 있으면 잃는 것도 있는 법! 현명한 포노 사피엔스로 살아가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 출처: 강원도민일보 2025년 2월 14일 26면 기사 일부 발췌. 기사 원본은 QR코드 참고

### 포노 사피엔스 시대의 명과 암

〈전략〉

2015년 무렵이었다. 영국의 유명한 시사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새로운 혁명이 대륙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발표했다. 바로 ‘포노 사피엔스(Phono Sapiens)’라는 새로운 인류의 탄생, 즉 포노족 시대의 개막이었다. 포노 사피엔스는 ‘스마트폰’과 ‘호모 사피엔스(현생 인류)’를 합친 용어로 스마트폰을 자기 신체의 일부처럼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세대를 의미한다. 우리나라도 1980년 이후 태생인 밀레니얼 세대와 1995년 이후 출생한 Z세대는 물론 거의 전 국민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지 않은가. 이들은 우버(Uber)를 타고 에어비엔비(AirBnB)로 여행을 다니며 아마존(Amazon)으로 소비하는 등 거의 모든 일상의 필요를 스마트폰으로 해결하는데, 이미 세계인구 45억 명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항상 지나침은 화를 부른다. 인류가 이 스마트폰에 중독되면서 나이에 상관없이 뇌를 심각하게 손상시킨다는 보고서가 연일 발표되고 있다. 스마트폰으로 SNS와 동영상 시청을 하는 습관은 뇌가 즉각적인 보상에 중독되어 ‘기다리는 능력’을 떨어뜨린다는 것이다. 영상 플랫폼의 알고리즘에 의해 관련 영상이 알아서 뜨니 굳이 검색할 필요가 없다. 그 결과 뇌가 수동적 역할에 익숙해져 번거롭고

복잡하게 생각하려 하지 않게 되고 그러다 보면 ‘팝콘 브레인’(데이비드 레비 미국 워싱턴 정보대학원 교수가 명명) 반응이 나타난다. 뇌가 팝콘 터지듯 크고 강렬한 자극에만 반응하는 현상을 뜻한다.

옥스퍼드 영어사전 출판사인 옥스퍼드대 출판부는 2024년 ‘올해의 단어’로 ‘Brain rot’ 즉 ‘뇌 썩음’을 선정했다. 온라인 콘텐츠를 과잉 소비해 지적 상태가 악화되는 것을 말한다. 뇌가 썩는다니, 이 얼마나 간에 썩썩 금 가는 소리마냥 무서운 말인가! 문제는 우리나라 국민의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다른 나라보다 길다는 사실이다. 지난해 12월 10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국제성인역량조사(PIACC)를 발표했다. 우리나라 성인(16~65세)의 언어능력, 수리능력, 적응적 문제해결력 평균 점수가 OECD 평균보다 낮았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하락 폭이다. 2013년과 2024년 두 번의 발표에서 하락 폭이 가장 큰 나라가 바로 한국이었다. 언어능력은 24점, 수리능력은 10점, 문제해결력



이광택 작 '마음속 봄날 모임'

도 10점이 떨어졌다. 언어능력을 연령별로 보면 55세~65세 하락 폭이 27점으로 가장 크다. 최근 한국에서 청년들의 문해력 저하가 뉴스를 장식하곤 하는데, 위의 통계는 정말 큰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상여 나가는데 보리밭 밟히는 것쯤은 예사’라며 어쩔 수 없지 했다가는 크게 줄경을 치를 게 뻔하다.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불편함을 감수하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알고리즘 추천을 거부하는 수고로움, 나와 다른 사람의 생각을 들어보려는 인내, 긴 글을 읽어보려는 집중력 등을 길러야겠다.

〈후략〉



서양화가 이광택



1. 옆면의 신문 기사를 읽고, 다음 용어의 의미를 기사에서 찾아 적어봅시다.

용어	의미
포노 사피엔스 (Phono Sapiens)	
팝콘 브레인 (Popcorn Brain)	
뇌 썩음 (Brain Rot)	



2. 지난 일주일 동안 나의 스마트폰 사용 시간과 주로 사용하는 앱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기록해 봅시다.(만약 스마트폰이 없다면 부모님 중 한 분의 사용 시간을 기록해 봅시다.)

확인 방법	안드로이드 폰: 설정 - 디지털 웰빙 및 자녀 보호 기능						
	아이폰: 설정 - 배터리 - 활동 보기						
요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사용 시간							
일주일간 주로 사용한 앱 Top 3							

1.

2.

3.



3. 기사의 제목에서 말하는 포노 사피엔스 시대의 ‘명’과 ‘암’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또, 현명한 포노 사피엔스로 살아가기 위해서 나는 어떤 다짐을 해야 할까요?

명 (明: 장점)	
암 (暗: 단점)	
나의 다짐	

## 03. 악성 댓글 공격을 막아라



인터넷 게시판이나 SNS에 게시된 내용에 대해 악의적인 평가를 하며 남기는 댓글을 악성 댓글, 즉 ‘악플’이라고 합니다. 최근 악성 댓글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혹시 상대방을 고려하지 않고 욕설이나 비방글을 함부로 게시하는 악플러가 주변에 있나요? 아니면 나도 그런 악성 댓글을 달거나 받아본 적이 있나요?

※ 출처: 한겨레 2025년 1월 8일 10면 기사 일부 발췌. 기사 원본은 QR코드 참고

### 가짜뉴스에 사이버불링 피해까지 제주항공 참사 유족들 “멈춰달라”

엄마, 인터넷에 아빠에 대한 이상한 얘기가 올라왔어. 퍼지는 속도가 너무 빨라. 아빠가 이걸 보면 너무 힘들어할 것 같아.”

박한신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의 아내 임아무개(44)씨는 참사가 일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딸에게 믿을 수 없는 얘기를 들었다. 박 대표가 ‘민주당 권리 당원이며 가짜 유가족’이란 게시글이 온라인에서 걸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다고 했다. 박 대표는 지난달 29일 제주항공 참사로 목숨을 잃은 고 박병곤씨의 친형이다. 참사로 동생을 잃은 끔찍한 고통 속에 유가족 뜻을 모아보려 나선 남편 마음이 다시 한 번 무너질까 두려웠다.

임씨는 시동생을 잃은 슬픔도 추스르지 못한 채, 직접 가짜뉴스 대응에까지 나서야 했다. 박 대표 이름을 검색하면 나오는 가짜뉴스(블로그, 유튜브 등)에 하나하나 ‘유족입니다. 허위사실이니 글을 내려주

세요. 부탁드립니다’라고 글을 적었다. 누리꾼들은 반성은커녕 마치 사냥감을 찾았다는 듯 달려들었다. ‘못 믿는다’, ‘가족관계증명서나 디엔에이(DNA) 검사 결과서를 올려라’, ‘떴떴하면 이름을 밝혀라’ 같은 공격이 이어졌다. 유가족이 가짜뉴스 피해자가 된 데 이어, 이를 바로 잡으려다 사이버불링(온라인에서의 집단 괴롭힘) 대상이 되기에 이른 것이다.

임씨는 7일 한겨레와 통화에서 “처음에는 설득하면 글을 내려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마치 게임이라도 하듯 남편과 저를 물어뜯었다”며 “중간에 응답을 그만두면 (남편에 대한 가짜뉴스를) 진짜라고 여길까 봐 대응하면서 몇 시간 동안 모욕을 견디기도 했다”고 했다. 그는 “참사에 같이 슬퍼해 달라고 하지 않는다. 그저 비방이라도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박 대표 자녀도 사회관계망서비스에 “동생을 잃으신 아버지에게 ‘사기꾼’이라는 댓글이 달린 걸 보면 너무 가슴이 아프다”며 “제발

유가족에게 다른 상처를 주지 않았으면 한다”고 적었다. 강도를 더하는 괴롭힘에 임씨는 과거 블로그 등에 올렸던 글과 가족사진도 전부 내렸다.

음모론과 가짜뉴스를 동원해 유가족을 모욕하는 일이 제주항공 참사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박 대표에 대한 가짜뉴스 외에도 ‘유가족이 과한 보상금을 요구한다’, ‘비행기 추락 영상 촬영자가 미리 사고를 알고 있었다’는 거짓 주장이 무분별하게 번졌다. 유현재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음모론이 유튜브 등에서 알고리즘 수익 창출 등과 직결되면서 누가 더 자극적인 음모론을 만들어내는지 경쟁하는 모양새”라고 설명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전날 저녁 5시 기준, 제주항공 사고 관련 온라인상 악성 게시행위 총 144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박고은 기자

2024년 12월 29일, 태국에서 출발한 제주항공 여객기가 무안국제공항에 착륙하지 못해 항공사고가 발생했고, 그로 인해 유가족들은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유가족들은 지금 악성 댓글로 인한 또 다른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1. 옆면의 기사에서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들에 대한 악성 댓글이 무엇인지 적어봅시다.



2. 유가족 협의회 대표가 되어 다음 질문에 답해 봅시다.

질 문	대 답
어떤 악성 댓글 때문에 힘드십니까?	
왜 사람들이 악성 댓글을 달았을까요?	
그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악성 댓글을 단 사람들을 우리 사회에서는 어떻게 처벌하면 좋을까요?	



3. 우리 주변에는 악성 댓글로 마음의 상처를 입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노래가 있을까요?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들려주고 싶은 노래의 가사를 만들어봅시다. (참고: 혼자라고 생각말기, 알았더라면, 위로, 한숨)

노래 제목:

## 04. 소중한 개인정보는 어떻게 지킬까요?



개인정보는 이름, 주민등록번호와 같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합니다. 디지털 사회에서는 개인정보가 자격이나 승인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책임감을 가지고 스스로 관리해야 합니다. 만약 부주의로 개인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노출된다면 난처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출처: 국민일보 2021년 4월 24일 1면 및 2면 기사 일부 발췌, 기사 원본은 QR코드 참고

### “우리 아이가 설마?” 하는 맹신, 온라인 범죄의 표적입니다.

초등 5학년 딸을 둔 신모씨는 지난 겨울 방학 딸과 대화를 나눈 뒤 수일간 밤잠을 설쳤다. 아이는 두어달 전 시작한 ‘제페토(ZEPETO)’라는 게임을 그만하겠다고 이야기를 꺼냈다. 제페토는 원격수업으로 외로워하던 딸이 직접 꾸민 아바타로 노는 게임이라며 친한 친구들도 다 한다고 졸라서 허락한 게임이었다. 지나칠 정도로 좋아하던 게임을 스스로 끊었다는 말에 신씨는 반가우면서도 한편 불안했다. 신씨가 이유를 캐묻자 아이가 들려준 대답은 충격적이었다. 아이가 아바타 팔로어를 늘리기 위해 앱 채팅을 통해 이름 모를 친구들을 사귀었고, 편의점에서 기프트카드를 사서 게임 속 친구들에게 선물 이벤트를 하거나 원하는 아이템 거래에 썼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다. 아이는 그날 밤 잠자리에서 “실은 사진을 보낸 적도 있다”고 털어냈다.

아바타 역할놀이 코너에서 랜톡(개인적인 대화)을 주고받던 상대방이 얼굴을 궁금해 해서 ‘셀카’도 보내고 몸 사진도 보냈다는 것이다.

아이의 “영상 대화하면서 상대방이 ‘이상한 행동’을 하라고도 했다. 지금 생각하면 이상한데 그때는 왜 그랬는지 진짜 모르겠다”며 울먹였다.



이 같은 현실은 실제 통계 결과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지난해 12월 서울시와 사단법인 탁틴내일이 12~19세(서울 초등학교 5학년~고등학교 3학년) 16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디지털 성범죄 실태 조사 결과 응답자 3명 중 1명(36%)이 메신저나 SNS 등을 통해 낯선 사람으로부터 쪽지나 대화 요구를 받아본 적 있다고 답했다.

아이들이 낯선 이와 대화하는 창구는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다. 유튜브나 SNS 댓글창, 게임 속 채팅 등 아이들은 어디서든 ‘대화’를 하고 있었다. 서울시 실태조사에서 특히 12~13세 초등학교생들의 경우 응답자의 30%가량은 ‘게임 채팅’을 통해 낯

선 이의 연락을 받았다고 답했다.

온라인에서 맺는 관계에 대해 아이들의 경계심이 낮은 경향도 있다. ‘익명’인 상대방이 누구인지 몰라서 위험하다는 인식과 달리 아이들은 온라인에서 자신 또한 ‘익명성’으로 보호받는다며 생각해 쉽게 많은 것을 털어놓는다는 것이다.

실태조사에서 응답자의 90% 이상은 온라인상에서 개인정보를 알려주는 것이 위험하다고 인식했지만, 낯선 사람에게 대화 요구를 받은 아이 중 64%는 실제 개인정보를 알려준 적이 있다고 답했다.



박고은 기자

 1. 옆면의 신문 기사를 읽고 '개인정보'에 대한 생각을 표현해 봅시다.

 1) 기사 속 사례에서 노출된 개인정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

 2) 개인정보가 노출되면 어떠한 문제점이 생기는지 예상하여 적어보세요.

---



---

 2. 소중하게 관리해야 할 개인정보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오른쪽 벌집 안에 적어봅시다.

1) 벌집 안에 적은 개인정보가 왜 중요한지 그 이유를 써보세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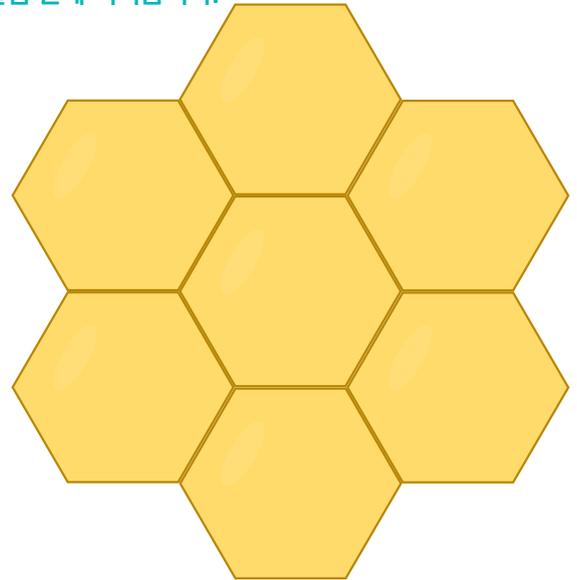
---

2) 벌집 안에 적은 개인정보 이외에 생각나는 개인정보가 있다면 더 적어봅시다.

---



---



 3. SNS, 인터넷, 게임, 쇼핑 등 디지털 세상에서 개인정보의 사용은 불가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정보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아래의 활동 자료 찾는 방법을 참고하여, 스스로 개인정보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조사한 후 2번부터 6번까지 적어봅시다.

번호	개인정보를 지킬 수 있는 방법
1	비밀번호는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게 만들어요.
2	
3	
4	
5	
6	

 **활동방법**

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www.pipc.go.kr)를 방문합니다.
2. 화면 오른쪽 위의 검색창에서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안내서'를 검색합니다.
3. 화면 가운데에 있는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안내서(2024.12.)> 클릭합니다.
4. '첨부파일'을 저장한 후 67~70쪽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 05. 디지털 공간이 무서워요.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발생해서는 안 될 학교폭력이 디지털 공간에서도 흔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이버 폭력은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피해를 주는 것뿐 아니라, 자살이나 자해를 시도할 수 있어 위험한 상황을 만들 수 있는 일입니다.

※ 출처: 세계일보 2024년 7월 25일 9면 기사 일부 발췌.

### 늘어나는 사이버 폭력... 피해 학생 46% 자살·자해충동

**푸른나무재단, 전국 학폭 실태조사  
피해 비율 15%... 언어 폭력 이어 최다  
가해자 특정·폭력 입증 쉽지 않아  
“학폭위와 별개 즉각 보호 조치 필요**

2년 전 중학생이던 A군은 같은 학교 학생에게 1년 넘게 사이버폭력을 당했다. 가해 학생은 A군 사진을 이용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칭 계정을 만들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일대일 대화방에서 욕설을 일삼았다고 한다.

SNS에서의 폭력은 현실로 확대돼 폭행으로 이어졌고 A군은 자퇴를 했지만, 그 뒤에도 한동안 정신적 고통을 견뎌야 했다. A군의 어머니인 김은정(가명)씨는 “SNS에 사칭계정을 만들고 모욕적인 언행을 해도 아무런 제재가 없었다”고 말했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어머니가 24일 서울 서초구 푸른나무재단에서 열린 전

국 학교폭력·사이버폭력 실태조사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학교폭력 중 사이버폭력이 늘어나고 있지만 가해자가 드러나지 않거나 폭력을 입증하기 어려운 탓에 피해자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익명성이 높은 온라인 특성을 고려해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푸른나무재단이 24일 발표한 ‘2024 전국 학교폭력·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학교폭력 피해 유형(중복 응답) 중 사이버폭력 비율은 15.1%로 언어폭력(23.5%) 다음으로 가장 많았다.

피해 학생들이 사이버폭력으로 겪는 고통도 컸다. 학교폭력 피해 집단 중 사이버폭력을 경험한 학생의 자살·자해 충동 경험률은 45.5%로 이를 경험하지 않은 학생(34.0%)보다 높았다. 사이버폭력 문제는 심화하고 있지만 피해 학생 지원 체계

는 미비한 실정이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서 학교폭력을 심의한 뒤 가해자 처분과 피해자 보호 조치를 내리는데, 가해자를 찾지 못하면 접수조차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다. 김미정 푸른나무재단 상담본부장은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어 피해 학생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즉각적인 도움과 지원을 받지 못하는 한계를 체감한다”고 말했다. 익명의 대화방에서 언어 폭력을 가하거나 앞선 사례처럼 사칭계정을 만드는 등의 방식은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렵다. 가해자가 계정 삭제 등 폭력 흔적을 지운다면 학교폭력을 입증하기도 쉽지 않다. 이에 사이버폭력이 발생하면, 학폭위 심의와는 별도로 피해자 요청에 따라 즉각적인 보호 조치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이정환 기자



1. [가치 수직선] 사이버 폭력을 경험해 본 적이 있나요? 수직선에 나의 위치를 표시하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적어봅시다.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Blank area for writing reasons for the scale.



2. [생각하기] 사이버 폭력에 대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자유롭게 적어봅시다.

Blank area for writing what you know about cyberbullying.



3. [질문하기] 사이버 폭력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새롭게 알고 싶은 질문을 적어봅시다.

Blank area for writing questions about cyberbullying.



4. [해결방안 찾기] 사이버 폭력이 문제가 되는 이유를 생각해보고, 자료를 검색하여 질문에 대한 답을 적어봅시다.

Four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reasons and solutions.

# 06. 혹시 나도 디지털 치매 환자?



우리는 스마트폰과 컴퓨터 없이 하루도 보내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편리한 디지털 기기가 우리의 기억력을 점점 약화시킨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디지털 치매'라는 말은 기술에 의존해 스스로 기억하고 생각하는 힘이 줄어드는 현상을 말합니다. 디지털의 시대에도 우리의 뇌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 출처: 이데일리 2024년 11월 28일 인터넷 기사 발췌. 기사 원본은 QR코드 참고

## 디지털 치매 '영츠하이머' 증가, 디지털 디톡스 시급

젊은 층 중심으로 스마트 기기 과의존이 심화되면서 치매 유사 증상을 보이는 이른바 '디지털 치매' 증세가 늘고 있다. 영츠하이머(Young과 Alzheimer의 합성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할 정도. 디지털 기기 사용이 늘어나면서 최근 기억 장애, 집중력 저하, 인지 기능 장애를 겪는 20~30대가 늘고 있다. 인지기능의 지속적인 손상은 치매 같은 신경 퇴행성 질환을 불러와 조발성 치매를 유발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2022 인터넷 이용 실태 조사'에 따르면 국내 모바일 인터넷 사용자들이 1주 평균 22시간, 하루 최소 3시간 이상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한 연구에 따르면 "20~30대 상당수가 스마트폰 없이 중요 약속이나 전화번호를 기억 못하는 경향이 증가 추세"라고 한다.

<중략>

### ◇ 디지털 기기 과의존 기억력 감퇴 불러

영츠하이머는 젊은 사람들이 마치 알츠하이머에 걸린 것처럼 심각한 기억력 감퇴와 집중력 저하, 인지 기능 장애를 겪는 것을 뜻한다. 인터넷 검색 창을 띄워놓고

검색 내용을 잊거나,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앱을 켜고 무슨 말을 할지 잊어버리는 식이다.

젊은 층에 특히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스마트폰, 노트북 등 전자기기에 과도하게 의존하면서 뇌에서 담당할 기억력

을 디지털 기기가 대신하며 뇌기능이 약화되어 기억력 감퇴를 불러온 것이 요인으로 분석된다. 특히 젊은 층은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하는 멀티태스킹을 자랑하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한 번에 두 가지 이상 일을 하는 멀티태스킹은 치매 위험을 높일 수 있다. 평소 TV를 시청하면서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거나 인터넷 검색을 하는 등 여러 종류의 디지털 기기와 미디어를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멀티태스킹은 뇌의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오히려 단기 기억과 주의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

<중략>

### ◇ 디지털 기기 사용 줄이고 사고 능력 키워야

디지털 치매가 장기화되면 기억력 감퇴와 인지 기능 장애가 심화돼 실제 조발성 치매로 이어질 수 있어 예방이 중요하다. 불필요한 디지털 기기 사용을 줄이고 업무나 일상생활에서 스스로 정보를 정리하고 기억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각종 기기들의 사용 시간을 정해두고 사용시간 제한 설정 등 디지털 디톡스를 실천한다.

이순용 기자





**1. 혹시 우리 가족 중에 디지털 치매의 위험에 노출된 사람이 있을까요? 기사에 나온 체크리스트를 통해 우리 가족의 두뇌 건강을 진단해 봅시다.**

아래 항목 중 2가지 이상 해당되면 디지털 치매 의심	확인		
	나		
사람과 대화할 때 거의 메신저 앱이나 메일을 통해 생각을 주고받는다.			
같은 이야기를 반복한다는 소리를 주위에서 한 적이 있다.			
전화번호는 회사와 집 번호밖에 기억하지 못한다.			
전날 먹었던 음식 메뉴가 기억나지 않는다.			
내비게이션 장치를 사용한 이후 지도 보는 습관이 없어졌다.			
서명할 때를 제외하고 손글씨를 거의 쓰지 않는다.			
처음 만났다고 생각한 사람이 알고 보니 이전에 만났던 적이 있다.			
아는 한자나 영단어의 뜻을 자주 까먹는다.			
집 전화번호임에도 가끔 까먹는다.			

(확인란의 '나' 옆의 빈칸에 가족들 중 진단하고 싶은 사람을 쓰고 함께 확인해 보세요.)



**2. 옆면의 신문 기사에 나오는 '디지털 디톡스'에 도전해 봅시다.**

- 온 가족이 쉬는 날 중 하루를 정해 스마트폰 없이 보내기로 약속합니다.
-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들 때까지 스마트폰의 전원을 끄고, 이를 모아서 서랍에 넣어둡니다.
- 그 날 저녁, 가족들이 모여 스마트폰 없이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 어떤 점이 불편했고, 어떤 점이 좋았는지 서로 이야기해 봅시다.

날짜	2025. . .	참가자	
----	-----------	-----	--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냈나요?

불편했던 점:

좋았던 점:



**3. 옆면의 신문 기사에서는 충분한 수면, 휴식, 운동을 하거나 사람들과 직접 만나 사회 활동을 하는 것이 뇌 기능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내가 가진 습관 중에 뇌에 좋은 영향을 주는 것에는 어떤 것이 있을지 떠올려봅시다.**

# 07. '스몸비'와 '몰폰'이 습관이라면?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걷는 사람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길에서 SNS나 게임에 집중한 나머지,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걷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같은 행동은 자신에게도 위험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도 불편을 줄 수 있습니다.

〈신문 기사 1〉

※ 출처: 문화일보 2024년 9월 11일 10면 기사 일부 발췌. 기사 원본은 QR코드 참고

## 등교땐 '스몸비' 수업중 '몰폰'... 학교는 스마트폰과 전쟁중

11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초등학교 등굣길. 스마트폰 '갬방(게임방송)'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며 걷는 '스몸비(스마트폰+좀비)' 초등학생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BJ(인터넷 방송인)의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좁은 골목에 울려 퍼졌다. 초등학생 자녀를 키우는 학부모 한모(42) 씨에게는 익숙한 풍경이다. 아파트 상가 내 학원 앞의 스마트폰 게임에 열중하는 수십 명의 초등학생들로 가득하다고 한다. 한 씨는 "와이파이가 잘 터지는 곳을 찾아온 '와이파이 낭인'들"이라며 "게임, 유튜브, SNS까지 스마트폰에 집착하는 학생들이 늘어 걱정"이라고 말했다.



11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 앞에서 한 초등학생이 고개를 숙이고 스마트폰에 시선을 고정해 등교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2023년 방송매체이용행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10대 스마트폰 이용률은 99.6%다. 사실상 모든 학생이 스마트폰을 이용하면서 '과의존'으로 인한 부작용이 교실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스마트폰 중독으로 정상적인 학교생활이 불가능한 학생들도 늘고 있다. A 씨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스마트폰 게임을 하느라 등교를 거부하거나 지각하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다"고 전했다. 초등학교 4학년 교사 B 씨는 "초등학생들도 '몰폰(몰래 휴대폰 하기)'은 일상이 된 지 오래"라며 "최근 한 학생이 '화장실에 간다'고 자리를 20분 동안 비워서 확인해보니 화장실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노지운·김린아 기자



〈신문 기사 2〉

※ 출처: 동아일보 2022년 7월 5일 14면 기사 일부 발췌. 기사 원본은 QR코드 참고

## "보행중 폰 사용" 69%... 사고 부른다

국민 10명 중 9명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스마트폰에 빠져 주변을 살피지 않고 걷는 일명 '스몸비족(스마트폰과 좀비의 합성어)'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늘고 있다.

보행자 교통사고를 줄이려면 운전자 못지않게 보행자의 안전 의식도 중요한데, 여전히 많은 이들이 걸으면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이다.

'스몸비족'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보행자의 안전도 위협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장맛비가 쏟아졌던 지난달 30일 광희

동 사거리에선 우산을 든 채 스마트폰을 보며 걷는 사람이 상당수였다. 한영준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보행 중 스마트폰 이용은 본인은 물론 타인의 보행에도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지적했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2014년부터 3년간 삼성화재에 접수된 보행 중 주의 분산에 의한 교통사고 사상자 1791명을 분석한 결과 61.7%(1105명)가 보행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보행 중 스마트폰을 이용할

경우 주의가 분산돼 돌발 상황에 대처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분석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실험에 따르면 보행자가 뒤에서 오는 자전거의 경적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리는 최대 12.5~15m 정도였다. 하지만 스마트폰을 사용해 메시지를 보내거나 게임을 하며 보행할 때 이 거리가 연령에 따라 33.3~80%까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취재팀〉





1. 옆면의 <신문 기사 1>과 <신문 기사 2>를 읽고 느낀 점을 써봅시다.

구 분	느낀 점
신문 기사 1	
신문 기사 2	



2. 아래는 우리가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있는 매우 흔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행동이 ‘왜 위험한지’ 그 이유를 적어봅시다.

스마트폰 사용 상황	왜 위험할까요?
횡단보도를 건널 때	
사람이 많은 거리를 걸을 때	
인도가 없는 차도를 걸을 때	
대중교통을 타고 내릴 때	
이어폰이나 블루투스를 끼고 걸을 때	
자전거를 탈 때	



3. 걸으면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은 위험한 행동입니다. 자신의 안전을 위해 <스마트폰 사용 규칙>을 만들어봅시다. 물론 실천도 해야겠지요!

구 분	스마트폰 사용 규칙 내용
규칙 1	
규칙 2	
규칙 3	

## 08. 진짜 같은 가짜 뉴스 구별하는 법



AI 기술의 발전으로 가짜 뉴스를 구별하는 일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 경험이 적은 10대와 20대는 가짜 뉴스를 판별하는 데 더욱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 가짜 뉴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정보를 가려내는 능력, 즉 정보의 진위를 판단하는 힘이 꼭 필요합니다.

〈신문 기사 1〉

※ 출처: 부산일보 2023년 5월 29일 19면 기사 일부 발췌. 기사 원본은 QR코드 참고

### 가짜 뉴스 판별력이 필요한 시대

가) 지난 22일(현지 시간) 오전 미국 펜타곤 건물에 불이 났다는 소식이 사진과 함께 트위터에 올라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급속히 확산하면서 미국 주식시장이 출렁이는 대소동이 일어났다. 러시아와 인도의 언론이 이 소식을 긴급 뉴스로 인용 보도하는 등 일파만파의 파장을 몰고 왔다. 관할 버지니아주 알링턴 소방서에서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공식 발표가 나오자마자 이 소란은 겨우 진정될 수 있었다. 또 시꺼먼 연기가 치솟는 해당 뉴스의 사진은 AI가 생성한 가짜 이미지인 것으로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에 의해 밝혀졌다. 이번 소동은 AI발 가짜 뉴스가 현실 사회에까지 큰 영향을 미친 첫 사례로 세계 언론사에 기록될 것이다.

나) 지난 3월 서울 도심에서 자동차들 사이를 달리는 한 얼룩말의 영상이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궜다. 이 영상이 SNS를 통해 전 세계로 확산되자 세계 주요 언론들도 앞다퉀 해외도입으로 보도하였다. 처음 이 영상을 소셜미디어를 통해 접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작된 거짓 영상이라고 생각했지만, '세로'라는 이름을 가진

얼룩말이 어린이대공원을 탈출했다는 사실이 동물원 관계자를 통해 알려지면서 가짜가 아닌 진짜 뉴스였음이 드러났다. 골목길에서 오토바이를 탄 남자와 세로가 마주친 사진이나 골목길에서 놀라 달아나는 남성 뒤로 세로가 달려오는 영상은 조작된 이미지와 영상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한 생경한 장면이었지만, 결국은 가짜 뉴스 같은 진짜 뉴스였다.



이화행 동명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신문 기사 2〉

※ 출처: 매일경제 2023년 10월 17일 4면 기사 일부 발췌. 기사 원본은 QR코드 참고

### 가짜뉴스에 더 잘 속는 1020세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시급

생성형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딥페이크를 악용한 정체불명의 가짜뉴스가 범람하고 있어 이를 판별할 수 있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가짜뉴스는 진짜와 가짜의 경계를 오가는 데다 기술의 급진화로 새로운 형태가 속속 등장하고 있어 처벌과 규제만으로 대응하기에는 현실적 한계가 있다. 특히 디지털 플랫폼에 익숙한 청소년이 가짜뉴스에 현혹될 위험이 높아 어렸을 때부터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시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전 세계적으로 커지고 있다. 1020세대는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언어에 익숙한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다. 스마트폰과 같은 디지털 기기를 분신으로 여기면서 모바일 게임을 즐기고 유튜브를 시청하며 타인과 소통한다. 스마트폰을 신체 일부처럼 사용하는

인류라는 뜻으로 '포노 사피엔스(Phono Sapiens)'라고 부르기도 한다. 나이가 1020세대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또래 집단과 정보를 공유하고 생산하는 데 익숙하다. 이들은 디지털 공간에서 감정을 나누고 교류하며 동질감과 친밀감을 느낀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지난해 7월 13일부터 9월 7일까지 전국 청소년(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3학년) 2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중복 응답 허용)을 진행하고 '10대 청소년 미디어 이용 조사'를 발표했다. 유튜브 등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을 통해 뉴스를 본다는 비율은 2019년 30.8%에서 2022년 63.7%로 크게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인스타그램, 페이스북과 같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뉴스 소비 비율도 41.4%에서 49.3%로 높아졌다. 대조적으로 언론사 홈페이지를 통한 뉴스 이용

률은 28.8%에서 15.3%로 3년 새 13.5%포인트 감소했다.

문제는 1020세대에 친숙한 디지털 플랫폼이 가짜뉴스 전파에 악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디지털 플랫폼이 뉴스 유통의 중심이 됐지만 기존 방송, 신문 등에 비해 책임이 없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배상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청소년 세대는 디지털 기기나 인터넷으로 뉴스 정보를 접하고 전달하는 데 익숙하기 때문에 가짜뉴스나 잘못된 정보에 취약할 수 있다”며 “특히 비판적 사고 역량이 부족한 청소년은 정보를 제대로 검증하거나 확인하지 않고 이를 수용할 확률이 높다”고 지적했다.



김대기 기자

 1. <신문 기사 1>과 <신문 기사 2>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 봅시다.

구분	느낀 점
신문 기사 1	가) 나)
신문 기사 2	

 2. [빨간볼, 노란볼] 기사를 읽으면서 잠시 멈추게 하는 부분은 노란색으로, 진실성이나 정확성이 의심스러운 부분은 빨간색으로 밑줄을 긋고, 가장 마음에 와 닿는 노란볼 문장 또는 빨간볼 문장과 그 이유를 적어봅시다.





 **활동방법**

- 1) '빨간볼'과 '노란볼'은 교통 신호등의 비유법을 이용하여 서행하게 만드는 노란볼, 멈추게 하는 빨간볼의 측면에서 생각을 유도하는 사고루틴입니다.
- 2) 신문 기사를 읽을 때 정확성이 의심스럽거나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빨간색으로 밑줄을 표시합니다.
- 3) 다시 읽을 때 관심과 주의가 필요한 부분, 잠시 멈추게 하는 부분이 있으면 노란색으로 밑줄을 긋거나 색칠합니다.
- 4) 왜 그 부분이 나에게 빨간볼 또는 노란볼인지 이유를 생각해 봅니다.
- 5) 가장 마음에 와닿은 빨간볼 문장 또는 노란볼 문장과 그 이유를 적어봅니다.

 3. 진짜 뉴스와 가짜 뉴스를 판별하는 능력을 키우는 방법을 찾아서 정리해 봅시다.

구분	진짜 뉴스와 가짜 뉴스 구별하는 방법
1	
2	
3	

# 09. 나의 디지털 유산, 지울 수는 없나요?



2018년에 제작된 영화 '서치(Search)'에서는 아버지가 실종된 딸을 찾기 위해 딸의 통화 목록, 페이스북, 구글, 유튜브 등 SNS에 남겨진 디지털 흔적을 추적하면서, 그동안 알지 못했던 자녀의 삶을 알게 되고, 이를 단서로 딸을 찾게 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실제로도 많은 범죄 수사에서 휴대전화와 같은 디지털 기기에 남은 기록들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남긴 수많은 디지털 기록과 흔적들은 누구의 소유이며, 어떻게 처리되어야 할까요?

〈신문 기사 1〉

※ 출처: 전자신문 2013년 12월 24일 27면 기사 일부 발췌

## 디지털 유산

### 온라인정보 늘어 사회적관심 관련 법안 개정안 잇따라 발의

지난 2010년 3월, 천안함 침몰로 희생된 장병 유족이 고인의 미니홈피 및 이메일에 접근할 수 있도록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용자 동의 없이는 타인에게 이용자 정보를 제공할 수 없도록 정보통신망법 등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대법원은 2007년 '타인'의 범위에 사망한 자도 포함된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이용자가 생전에 만든 디지털 콘텐츠가 디지털 유산이다. 미니홈피·블로그 등의 게시물·사진·동영상뿐만 아니라 온라인 게임에서 획득한 게임 아이템이나 사이버머니도 포함된다.

디지털 유산 처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발시킨 계기는 지난 3월 구글의 '휴면 계정 관리자' 서비스 도입이다. 이 서비스는 가입자가 일정 기간 접속하지 않으면 사망에 준한다고 판단하고 이를 관리할 권리를 사전에 지정한 사람에게 넘기는 것이다.

국내에서도 관련 법안이 잇달아 발의되면서 디지털 유산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발의된 디지털 유산 관련 법안 개정안은 이용자가 사망 이후 개인정보 처리방법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올해 5월에는 또 다른 개정안이 발의됐다.

디지털 유산이 주목 받는 이유는 오프라인 정보로 대체할 수 없는 온라인 정보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상당한 정보를 인터넷에 남겨두면서도 사후



문제는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 디지털 유산 상속이 가능해지면 죽은 사람의 디지털 정체성이 사이버 공간에서 표류하는 것을 막아준다. 자칫 사장될 수 있는 콘텐츠도 살릴 수 있다. 입법과정에서 고민해야 할 것은 '유족의 상속 권리'와 '고인의 잊힐 권리'를 어떻게 조화시킬지다.

정미나 기자

〈신문 기사 2〉

※ 출처: 한겨레 2019년 7월 30일 23면 기사 일부 발췌. 기사 원본은 QR코드 참고

## 여러분은 어떤 '디지털 발자국'을 남기고 있나



〈신문 기사 3〉

※ 출처: 전자신문 2025년 1월 20일 4면 기사 일부 발췌. 기사 원본은 QR코드 참고

## 디지털 유산, 논의 재점화... AI 시대 맞춰 인식 변화할까요





### 1. <신문 기사 2>와 <신문 기사 3>의 제목을 보고 기사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지 예상해 봅시다.

구 분	내용 예상하기
신문 기사 2	
신문 기사 3	



### 2. 먼 미래의 후손들에게 나의 디지털 유산 상속에 대한 유언장을 남겨봅시다.

여러분은 내가 세상을 떠난 후 곳곳에 남겨진 나의 디지털 흔적들을 어떻게 하고 싶나요?

디지털 유산 상속 유언장				
유언자 (본인)	이름: 생년월일:	수유자* (상속자)	이름: 생년월일:	관계:
<p>본인은 본인의 사망 후 다음의 디지털 유산을 수유자에게 상속하며, 상속되지 않은 모든 자료와 삭제 조치를 요청한 데이터의 영구적인 삭제를 요청합니다.</p> <p><input type="checkbox"/> 온라인 계정 및 데이터: 온라인 아이디 및 비밀번호, 게시물, 메시지, 사진, 영상 등 모든 데이터</p> <p><input type="checkbox"/> 디지털 기기 및 저장 매체: 휴대전화, 컴퓨터, 외장 하드 드라이브, USB 메모리 등 기타 디지털 기기 전체 및 저장된 모든 데이터</p> <p><input type="checkbox"/> 디지털 콘텐츠: 소장한 전자책, 음악, 영화 등 디지털 콘텐츠, 직접 제작한 디지털 콘텐츠</p> <p><input type="checkbox"/> 그 밖에 상속하고 싶은 디지털 유산 목록</p> <div style="border: 1px solid #ccc; height: 60px; margin-top: 5px;"></div> <p><input type="checkbox"/> 영구 삭제하고 싶은 디지털 유산 목록</p> <div style="border: 1px solid #ccc; height: 60px; margin-top: 5px;"></div>				
			2025. . .	인
			유언자:	

\*수유자는 재산을 물려받을 것으로 유언에 지정되어 있는 사람을 말함.



#### 활동 방법

- 1) 체크 박스에서 상속을 희망하는 항목만 체크합니다.
- 2) 그밖에 상속하고 싶은 디지털 유산과 삭제되기를 바라는 디지털 유산을 작성합니다.

## 10. 전 세계가 미성년자의 디지털 사용을 규제하는 이유



미성년자의 디지털 기기 사용과 관련된 문제는 전 세계적인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여러 국가에서는 미성년자의 디지털 사용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성년자들의 디지털 사용 규제를 추진하는 원인과 그로 인해 예상되는 효과를 알아봅시다.

〈신문 기사 1〉

※ 출처: 매일경제 2025년 2월 6일 인터넷 기사 일부 발췌. 기사 원본은 QR코드 참고

### “중독되면 담배만큼 해롭다”... 청소년 SNS 금지 추진하는 이 나라

(전략)  
특히 지난해 7월 어린이 댄스 교실에 침입해 흥기를 휘둘러 어린이 3명을 살해한 18세 청소년이 사건 직전 SNS를 통해 정지적으로 편향되고 극단적으로 폭력적인 영상을 시청한 것으로 알려져 영국 사회

에서는 청소년의 무분별한 SNS 사용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베트 쿠퍼 내무장관은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 금지를 고려할 것이냐는 질문에 “불가능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답했다.

크리스 필프 전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부 장관도 “청소년의 SNS 사용 금지 조치에 대해 찬성한다”라며 “연령 제한은 16세보다 더 낮아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김재관 기자



〈신문 기사 2〉

※ 출처: 아시아경제 2025년 1월 29일 인터넷 기사 일부 발췌. 기사 원본은 QR코드 참고

### 연휴에 멍때리고 틱톡 보면 ‘브레인 로트’... 세계는 SNS와 전쟁 중

(전략)  
SNS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각 국에선 SNS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추세다. 호주에선 지난해 11월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부모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미성년자의 SNS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이 마련된 건 전 세계에서 최초다.

또 미국과 호주를 비롯한 영미권에선 지난해 9월 인스타그램 ‘10대 계정’을 도입하기도 했다. 이는 청소년 보호 차원에서

부모가 청소년 자녀의 인스타그램 사용 시간을 제한하는 게 골자다. 또 부모 등 보호자는 자녀가 지난 7일간 대화를 나누는 상대 목록도 확인할 수 있다.

한국도 청소년의 과도한 SNS 사용을 우려해 지난 22일부터 국내 14~18세 청소년 가입자를 대상으로 ‘10대 계정’ 정책을 적용했다. 국내 만 14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의 인스타그램 계정은 비공개 전환된다. 새로 생성되는 10대 계정 역시 비공개가 기본 설정이다.

전 세계적으로 청소년의 SNS 중독 예방

을 위한 법안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정치권에서도 규제의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해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하루 이용 한도를 설정하는 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NS 사업자가 14세 미만 아동의 회원 가입을 거부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다만 관련 법안들은 모두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허미담 기자





1. 많은 국가가 미성년자의 SNS 중독 및 기타 문제점을 이유로 디지털 사용 규제를 추진하고 있거나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옆면의 신문 기사에서 소개하고 있는 각국의 미성년자의 디지털 사용 규제 방안을 요약해 봅시다.

국 가	규제 방법
영국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 금지
호주	
미국 등 영미권	
한국	



2. 부모님, 선생님, 친구들과 “미성년자의 디지털 사용 규제”에 대해 인터뷰를 진행하고 그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또, 주변 사람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이러한 해결 방법의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관계	입장(찬/반)	그렇게 생각하는 까닭, 혹은 그 밖의 의견
부모님		
선생님		
친 구		

규제의 긍정적 효과	규제의 부정적 효과



3. 디지털 사용 규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정하고 그렇게 주장하는 까닭을 적어봅시다.

나의 입장	까닭
찬성 / 반대	

# 11. 보호받아야 할 저작권



디지털 세상에서는 글, 음악, 사진, 그림, 동영상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SNS 등을 통해 정보를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불법적으로 유통하는 행위도 늘고 있어요. 이러한 행위는 창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신문 기사 1〉

※ 출처: 헤럴드경제 2023년 1월 16일 21면 기사 일부 발췌. 기사 원본은 QR코드 참고

## 저작권 위반 1년새 53%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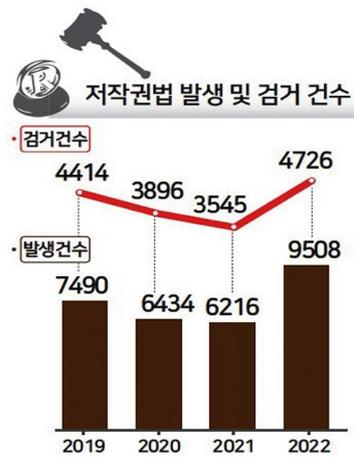
지식재산권에 속하는 저작권을 위반한 사례가 지난해 들어 폭증했지만, 검거 건수는 절반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외 서버를 통해 만화나 웹소설 등 콘텐츠를 무단 배포되는 사례가 늘지만, 해외 당국의 협조가 쉽지 않은 것이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16일 헤럴드경제가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주요 지식재산권 침해사범 발생·검거 현황을 보면 지난해 저작권법 위반 사례는 9508건 발생해 6216건에 그친 전년보다 3000여건 많아져 53% 폭증했다.

경찰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저작권법 위반으로 검거된 건수는 4726건으로 전년 대비 33.3%(1181건) 증가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저작권법 위반 사례는 다른 지식재산권 범죄와 달리 온라인상에서 침해 사례가 많다”며 “IP를 통해 배포자를 추적해도 특정하기가 어려워서 검거에도 어려움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에는 영화 등의 영상물을 무단 배포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으나, 최근엔 유튜브 브나 넷플릭스 등 스트리밍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사진이나 만화, 웹소설 등의 무단 배포가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는 법률이다. 소설이나 각본, 논문 등의 어문 저작물부터 음악, 미술, 영상, 컴퓨터프로그램 등 다양한 저작물을 보호해 문화 및 관련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김영철 기자



〈신문 기사 2〉

※ 출처: 헤럴드경제 2023년 12월 22일 20면 기사 일부 발췌. 기사 원본은 QR코드 참고

## “타인 SNS글 무단게시 처벌” 大法, 저작권법 위반 첫 판단

타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을 베껴서 자신이 쓴 것처럼 게시할 경우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저작자인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익)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받은 가해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2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저작자인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기계항공공학 박사로서 평소 SNS에 전문성 있는 글을 다수 올렸다. 사건은 피해자가 페이스북 계정

을 달은 뒤에 발생했다.

가해자 A씨는 미리 복사해 둔 피해자의 글 약 40개를 2015년 3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자신의 SNS 계정에 무단으로 올렸다. 또 임의로 구성을 변경해 게시했다.

독자들은 해당 글을 피해자가 아니라 A씨가 작성한 것으로 착각했다.

A씨의 SNS 계정엔 “항상 박식하신 글을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단하신 필력에 감사드립니다” 등의 댓글이 달렸고 A씨 본인도 “과분한 칭찬입니다,” “썩스럽습니다” 등의 답글을 남겼다.

뒤늦게 이를 알게 된 피해자는 A씨를 고소했다.

1심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일부 혐의에 대해선 무죄였다.

2심의 판단은 달랐다. 1심에서 무죄가 나온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선고해 벌금 1000만원을 택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표절 의혹을 받고, 이를 해명해야 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판이 훼손될 위험에 처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2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안세연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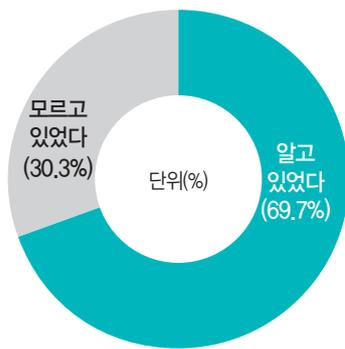


1. 옆면의 <신문 기사 1>, <신문 기사 2> 가운데 1개를 선택해, 육하원칙에 맞춰 요약해 봅시다. 신문 기사에서 해당 내용이 없으면 적지 않아도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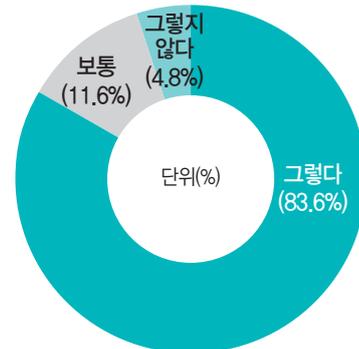
신문 기사 ( )번	요약 내용	신문 기사를 읽고 느낀 점
누가		
어디서		
어떻게		
언제		
무엇을		
왜		

2-1. 아래는 저작권에 대한 초등학생들의 생각을 조사한 결과입니다.

음악을 유튜브 배경 음악으로 편집·사용하면 저작권 침해 행위인 것을 알고 있나요?



나는 SNS에 타인의 글·사진·그림을 함부로 올리지 않고 있나요?



※ 출처: 한국저작권위원회, 2023년 청소년 저작권 의식조사 중 '사전조사' 결과

2-2. 위 그래프를 읽고, 아래 표에서 각자 선택한 뒤 선택한 이유를 적어봅시다.

구분	이유
음악을 유튜브 배경 음악으로 편집·사용하는 행위 하겠다( ) 하지 않겠다( )	
SNS에 타인의 글·사진·그림을 올리는 행위 하겠다( ) 하지 않겠다( )	

3. 사람들이 글, 음악, 사진, 그림, 동영상과 같은 콘텐츠를 디지털 세상에서 마음대로 사용하게 된다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까요? 또 콘텐츠를 만든 사람은 어떤 심정일지 창작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구분	이유
문제점	
창작자의 입장	

# 12. 디지털 중독에서 탈출하라



혹시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사용하다가 정해진 시간을 넘긴 적이 있나요? 가끔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게임이나 SNS에 지나치게 몰입하다 새벽까지 시간을 보내고, 그로 인해 아침에 지각하거나 결석하는 등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어요. 혹시 나도 디지털 중독은 아닌지, 한 번 점검해 볼까요?

〈신문 기사 1〉

※ 출처: 동아일보 2025년 2월 3일 6면 기사 일부 발췌. 기사 원본은 QR코드 참고

## 청소년 뇌, 찰흙처럼 말랑한 상태. 스마트폰 중독 더 치명적

스마트폰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중독은 전 연령대에서 나타날 수 있지만 뇌에 미치는 영향은 성인보다 청소년에게 더 치명적이다. 행위 중독으로 인해 기능이 떨어지는 뇌의 전두엽 부위는 뇌에서도 가장 마지막에 발달하는 부위이기 때문이다. 이 부위는 소위 ‘중2병’으로 불리는 사춘기 시기에 비로소 완성된다. 박혜윤 용인세브란스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청소년기의 뇌는 아직 말랑말랑한 찰흙 같은 상태”라며 “만약 이때 스마트폰이나 SNS에 과의존해 전두엽이 제대로 성숙하지 못하고 성인이 되면 정상으로 되돌리기 쉽지가 않다”고 했다.

더 큰 문제는 청소년기의 스마트폰·SNS 과의존이 성인이 돼서 다른 행위 중독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박 교수는 “스마트폰, SNS는 아직 연구 초기 단계라 정확히 뇌의 어떤 회로를 통해 중독이 발생하는지 알 수 없다”며 “만약 게임, 쇼핑 중독 등 다른 행위 중독과 유사한 메커니즘으로 중독이 발생한다면 성인이 된 후 다른 행위 중독에 더 취약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찰흙 상태의 뇌가 행위 중독에 취약해진 상황에서 그대로 굳어 버리는 셈이다.

홍순범 서울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역시 “청소년기에는 ‘뇌의 재배선(brain

rewiring)’이 활발하게 일어나, 많이 사용하는 네트워크는 살아남고 그렇지 않은 건 도태된다”며 “만약 스마트폰·SNS에 의해 도파민이 분비되는 보상 회로 등이 발달된 상태로 재배선이 돼 버리면 나중에 되돌리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최지원 기자

〈신문 기사 2〉

※ 출처: 서울경제 2024년 10월 31일 30면 기사 일부 발췌. 기사 원본은 QR코드 참고

## 디지털 셧아웃

2018년 10월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한 게시물이 프랑스를 발각 뒤집어놓았다. 한 10대 남학생이 학교 교실에서 교사의 머리에 가짜 총을 겨누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었다. 학생은 “장난이었다”고 해명했지만 검찰은 그를 가중 폭행 혐의로 기소했다. 어린 학생의 도를 넘은 폭력성과 교권 붕괴에 사회가 들끓는 와중에 친구가 스마트폰으로 찍고 있지 않았다면 학생이 그런 짓까지 했겠느냐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프랑스는 그해 9월부터 15세 미만 학생이 학교에서 수업 때는 물론 휴식·식사 시간에도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른바 ‘디지털 셧아웃’

강제하는 법을 시행했지만 기기 소지가 허용된 상태에서 통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올 4월 에마뉘엘 마크롱 정부의 전문가 위원회가 발표한 보고서는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한껏 고조시켰다. 보고서는 과도한 스마트폰·SNS 노출에 따른 신체·정신적 악영향을 지적하고 3세 미만의 영상 시청과 11세 미만의 스마트폰 사용, 15세 미만의 SNS 이용 등을 금지해야 한다는 결론을 냈다. 이에 기반해 프랑스는 올 9월부터 시범적으로 약 200개 중학교를 대상으로 학생의 교내 스마트폰 소지를 금지한 데 이어 내년부터

모든 초·중학교로 이 조치를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학생이 등교하면 스마트폰을 수거해 학교할 때 돌려주는 방식이다. 알렉상드르 포르티에 프랑스 교육부 학업성취 담당 장관은 “지금은 국가적 위기 상황”이라며 “아이들의 건강을 지킬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기존 입장을 뒤집어 이 같은 규제가 학생 인권 침해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미래 세대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지혜를 모으는 일이 시급한 상황이다.



신경림 논설위원

※ 활동주제 6번과 연계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여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됩니다.

 1. <신문 기사 1>을 읽고 새롭게 알게 된 점을 정리해 봅시다.

새롭게 알게 된 점

 2. <신문 기사 2>를 읽고 프랑스에서 시행되고 있는 ‘디지털 쉽표’에 대한 물음에 답해 봅시다.

디지털 쉽표는 무엇입니까?	디지털 쉽표가 만들어진 계기는 무엇입니까?	전문가위원회 보고서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3. 우리나라에서도 프랑스처럼 학교에 디지털 쉽표 정책이 필요할까요? 자신의 의견을 정리하고, 합리적인 근거를 들어 주장하는 글을 작성해 봅시다.

우리나라 학교에 디지털 쉽표 정책이 ( )



# VISA

## 축하합니다

\_\_\_\_\_ 학교 \_\_\_\_\_ 학년 \_\_\_\_\_ 반 이름 \_\_\_\_\_

위 학생은 2025 '신문으로 배우는 디지털 시민교육' NIE 패스포트  
활동 주제를 수행했습니다.

담당교사(또는 부모님) 서명 \_\_\_\_\_

### 증명

한국신문협회는 2025 '신문으로 배우는 디지털 시민교육' NIE 패스포트의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했음을 증명합니다.

한국신문협회 사무총장

정우현









발행일 | 2025년 6월 5일  
지은이 | 최상희 경향신문 편집국 부장  
이유진 서울정목초등학교 교사  
강병길 경기초등학교 교사  
발행인 | 임채청  
편집인 | 정우현  
주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한국프레스센터 13층 한국신문협회  
전화 | 02-733-2251~2  
팩스 | 02-720-3291  
홈페이지 | [www.presskorea.or.kr](http://www.presskorea.or.kr)  
주최 | 한국신문협회  
Korean Association of Newspapers  
후원 |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NIE(신문활용교육) 패스포트(워크북)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발간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QR코드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한국신문협회

Korean Association of Newspapers

한국신문협회

Korean Association of Newspapers